

200자 안내

사랑의 風土

앙드레 모로아 지음 / 元潤洙 옮김

소설가, 역사가, 전기작가, 에세이스트 등 여러 장르에서 활약한 현대 프랑스의 지성인 모로아의 장편소설. 정념의 운명적인 불일치와 행복한 균형에 도달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사랑의 불행을 묘사하고 있다. 절제된 톤과 전통적인 구성기법으로 이루어진 심리적이고 고전적인 사실주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自由敎養社/A5신/269면/3000원

결단의 조건

矢島鈞次 지음 / 차경란 옮김

일본인이 한국계계의 거물이었던 삼성그룹의 총수 이병철씨의 삶과 철학에 대해 쓴 책. 10년전 「한국경제의 도전」이란 제목의 책을 낸 뒤 이병철씨를 직접 만나 자문을 구해 탈고했으나, 박대통령의 암살로 출판이 미뤄지고 결국 이병철씨마저 세상을 떠난 뒤 빛을 보게 되었다. '일본인보다도 더 일본을 사랑'했다는 이병철씨의 여러 면모가 드러나 있다.

청림출판/A5신/329면/3800원

사랑굿

金初蕙 지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시집 「사랑굿 1」 「사랑굿 2」와 그 뒤에 씌어진 시들을 함께 모아 한권으로 묶었다. '사랑굿'이라는 제목 아래 쓴 163편의 연작시를 한권에 담은 것이다. 만남의 문제로 시작되어 죽음이라는 이별의 양식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존재론적인 드라마를 형성하고 있으며, 혼탁한 시대 속에 진정한 사랑을 찾는 지순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문학사/B6신/233면/2800원

지성적인 젊은 어머니에게

波多野勤子 지음 / 李榮淑 옮김

일본의 여류 아동심리학자 하다노 이소여사의 체험적 육아교육법. 자식을 단호히 키운다는 것보다, 잘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과외공부 한번 안시키고 아들 모두를 최고 엘리트로 키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자녀를 다 키워놓은 뒤 어떻게 해야 여성으로서 가장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

太陽社/A5신/218면/2500원

환상모험

알퐁스 도데 지음 / 강성희 옮김

프랑스 자연주의문학의 대표적 작가 중의 한사람인 도데의 작품집. 장편 「따르따랭의 대모험」과 단편집 「예술가의 아내」가 함께 수록돼 있다. 남프랑스의 조그만 도시 타라스공을 무대로 프랑스판 돈키호테의 모험을 그리고 있다. 여러가지 사건들이 우연적으로 잡다하게 얽혀져서 웃음을 자아낸다. 「따르따랭」은 도데가 창조한 작품인물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

자유시대사/A5신/251면/3000원

西太后(상·하)

梁白華 지음

신문학 초창기에 소설과 평론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으며 대표적 중국문학자이기도 했던 저자가 청나라 말기 서태후를 주인공으로 하여 쓴 역사소설. 1861년에서 1908년까지 50여년 동안 세번이나 수렴정치에 참여하여 막강한 실권을 휘둘렀던 여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그리고 있다. 격동의 19세기말 중국황실 내부의 암투가 잘 나타나 있다.

깊은샘/A5신/269·265면/각권 2,800원

열쇠없는 생

智首스님 지음

75년 대구 把溪寺에 입산, 승려가 되었고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사원을 돌아다니며 수행과 포교를 한 지수스님의 첫번째 수상집. 온갖 욕심과 번잡스러움을 다 벗어 놓고 발우 하나 목에 비껴 매고서 세계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며 느낀 감정과 깨달음, 만남과 헤어짐에 관한 성찰을 아름다운 문장에 담고 있다.

샘터/A5신/201면/2500원

홀로 광야를 헤매는 나그네여

브하그만 슈리 라즈니쉬 지음 / 류시화 옮김

칼릴 지브란의 시 「예언자」에 담긴 진리를 설파한 라즈니쉬의 강의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이 시대의 새벽빛이었던 그는」에 이은 두번째 번역서이다. 집에 대하여, 옷에 대하여, 죄와 벌에 대하여, 법에 대하여 등 13가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살아있는 언어로 되살리고 있다. 신과의 참다운 만남, 삶 속에 깃든 심오한 진리가 마음의 평화를 심어준다.

정신세계사/A5/300면/3500원

과학적 관리법

F.W. 테일러 지음 / 申永澈 옮김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목적은 노사의 최대 번영과 함께 종업원의 최대번영을 창조하는데 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이론은 기업관리를 통한 생산의 계획적 관리를 말한다. 이 책은 과학적 관리법의 기초와 4가지 원리를 고찰하고, 5가지 사례연구를 통해 과학적 관리법의 적용을 알아보고 있다.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효과분배에 대한 해설도 실었다.

韓國能率協會/A5신/218면/3500원

黃帝內經概論

龍伯堅 지음 / 白貞義·崔一凡 옮김

중국 최초의 의학문헌 「황제내경」의 이해를 위한 해설서. 「황제내경」의 저작시기, 기록내용, 성과, 세계의학사적 위치 등에 대한 문제를 6편의 논문으로 해명하고 있다. 「황제내경」의 음양오행설과 문헌에 인용된 고대의 학사들을 고찰하고, 그것과 관련된 「甲乙經」 「黃帝內經太素」 「類經」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서양의학과 비교의 관점에서 「內經의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논장/A5/216면/3000원

中國大陸

洪滿浩 외 지음

흑룡강성신문 부주필이 쓴 오늘의 중국현황, 중국이 대체 어떤 나라이며, 지금 실시되고 있는 개혁이란 어떤 것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각 지구의 산업현황과 대외개방에 관련되는 법규가 실려 있어 중국과의 교역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록으로는 '중국대륙 관광가이드'가 수록돼 있다.

녹원출판사/A5/494면/7000원

반함의 구슬

신영철 외 지음

「불 붙는 난간」 「석양꽃」에 이은 세번째의 정예작가중편선집. 최근 활발한 창작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작가 4명의 대표중편작품들을 수록했다. 신영철의 「반함의 구슬」 이상문의 「숨은 그림찾기」 박석수의 「동거인」 정진영의 「빈 그네소리」 수록.

동화출판공사/A5신/320면/3300원

社會保障, 이대로 좋은가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엮음

제6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30여명의 교수·전문가들의 광범위한 토론내용이 집약돼 있다. 崔千松연구소장의 주제발표 「사회보장, 이대로 좋은가」와 일반토론

자들의 토론내용을 요약해서 수록했다. 사회정책관과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국민연금 적용, 의료이용 극대화문제 등을 제시했다. 부록으로 국내 사회보장관계 문헌목록을 실었다.

한국사회보장연구소/A5/152면/4500원

멋진 인생

이시형 지음

「배짱으로 삽시다」 「자신있게 사는 여성」 등을 펴낸 바 있는 저자가 그동안 일간지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평범한 이야기들 속에 생활의 고달픈 찌꺼기를 씻어내는 지혜가 담겨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주저될 때」 「일이 하나도 재미없을 때」 「잠오지 않는 밤이 괴로울 때」 등 75가지 내용의 인생상담을 들려준다.

언어문화사/A5신/316면/3500원

교사와 교권

진영옥 지음

사립학교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학교 법인에 의해 어떻게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또한 교권확립을 위해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교권 침해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교권확립의 저해요인들을 추출해냈으며, 사립학교 교사들과 관련된 교육관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교권침해를 막는 법적 제도장치를 모색했다.

거름/A5신/322면/4200원

꿈과 사랑을 위한 팽세

박현령 지음

여류시인이며 그동안 여러권의 에세이집을 상재한 바 있는 저자의 수상집. '기쁜 만남을 위하여, 슬픈 이별을 위하여,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 띄우는 진실의 메시지' 59편이 실려 있다. 일상생활을 하며 주위에서 부딪치게 되는 체험들을 가식없는 담담한 필치로 담았다. '사랑' '여성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유문학사/A5신/279면/3000원

기호학과 해석

로버트 솔즈 지음 / 유재천 옮김

문학은 가장 핵심적인 기호학 연구영역이다. 이 책은 문학연구에 대한 문학기호학적 입장에서 쓴 이론서. 리파테르·로트만·쥬네트 등 대표적인 기호학자들의 개념을 요약 소개하면서, 이를 시·소설·연극·영화·인간의 육체에 적용시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저자는 텍스트 해석의 훈련에 대한 기호학적인 접근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現代文學/A5신/210면/3500원

韓國地方史料目錄

金渭顯 著

향토사와 관계있는 문헌자료를 시대별로 분류 수록한 자료집. 邑誌와 향토사료는 각각 조선시대·항일시대·대한민국의 시대별로 구분해서 실었다. 향교와 서원관계문헌은 항목을 세분해서 책명, 편년, 책수 등까지 상세히 밝혔다. 역사연구가 중앙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지배층 중심에서 서민중심으로 옮겨지는 시집에서의 자료목록과 소장처 등을 밝힌 조사자료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藝文春秋館/A5/512면/15,000원

흐르지 않는 세월

金泰吉 著

현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절실한 문제들을 철학적 이성으로 사색한 장편에세이집. 선악에 대한 기본원리, 아무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나'와, 사회정의의 문제, 지성과 사회의 문제, 사랑, 시간 등에 관한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있다. 철학이란, 전문적 술어에 익숙한 일부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보여주시는 평이한 글이 일반인들의 철학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철학과현실사/A5신/302면/3300원

비틀거리는 都市

金洪信 著

도시의 외곽에서 일어나는 온갖 음모와 술수, 그 속에서 비밀스럽게 피어나는 악의 꽃들, 한이 없힌 여인의 복수 등 도시의 천대만상을 흥신소 직원 조진질의 활약을 통해 도시의 모습과 그 속에서 생명을 이어나가는 인간들이 삶을 흥미롭게 그려 온 작가의 최신작

평민사/A5신/272면/3000원

科學技術과 精神世界

湯淺泰雄 著 / 朴熙俊 옮김

일본에서 열린 '신과학운동' 국제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집 가운데 해설편을 묶은 책. '신과학운동'은 인류의 행복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달성될 수 없다는 인식과, 기계론적 세계관이 파기된 20세기의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신문명과 생물의 진화 메카니즘을 중시하고, 유기체적인 우주관을 추구하는 신과학운동의 내용이 새롭게 제시돼 있다.

범양사출판사/A5신/316면/3500원

행복을 생각하는 당신

金永銖 著

인간사에 있어서 행복과 관계된 모든 측면들, 즉 자기발전·고뇌·성취·젊음·사랑·

지혜·신앙 등을 차분하게 관조한 수필집. 인간의 행복이란 동물의 행복처럼 알고도 단순한 쾌감의 연속이 아니라, 삶의 원근에 대한 깊고도 높은 만족감의 지속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汎友社/A5신/240면/3000원

계간지

창작과 비평 (88년 겨울호)

[좌담] 새로운 대학공동체의 모색(김진균, 백영서, 방기중, 강순원, 고재호)

[평론] ▲ 항쟁 이후의 문학(황석영) ▲ 민족문학과 반미문학(최원식) ▲ 빨치산 기록물과 그 소설화(황광수) ▲ 삶의 구체성과 진실성(龍澤秀樹) ▲ 일제초 구지식인의 문예활동과 그 친일적 성격(강명관)

[논문] ▲ 증권시장의 팽창과 한국자본주의(전철환) ▲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회성격과 시대구분 논쟁(이병천) ▲ 80년대 미국 노동운동의 위기(조순경)

[시론] ▲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임산진) ▲ 서울 국제펜대회의 명암(이남)

[발굴] 茶山 丁若鏞의 서사시 「소경에게 시집간 여자」(해설 임형택)

[시] 박두진/정희성/황지우/김영/강세환
[소설] 송영/김한수(신인)

문학과 사회 (88년 겨울호)

[특집] 문화적 실천의 방법과 지향 ▲ 현대사 연구 방법론의 방향(강정구) ▲ 알튀세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윤소영) ▲ 30년대 중국 문예계의 통일전선 운동(유중하) ▲ '문학'이라는 것의 욕망(정과리)

[비평] ▲ 리얼리즘과 모방이론(김옥동) ▲ 군대와 한국소설(김철)

[오늘의 한국문학] ▲ 시간 이겨내기의 의미(권오룡) ▲ 물신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하여(김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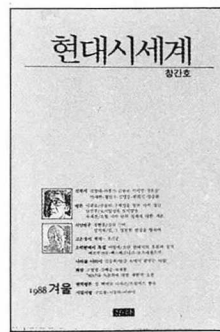
[시] 송기원/김준태/안수환/김정환/이영유/기형도/김갑수/김희승

[소설] 임철우(연재)/하창수/채영주
[서평] 이광주/김동춘/박재목/박덕규



창간호

현대시세계



국내 최초로 시전문 계간지가 창간되었다. 소모보다는 창출에, 소비보다는 생산에 기여하는 시문학 논의와, 그 논의의 진정성에 필적하는 우수한 시문학 산출을 당면과제로 보고 "시와 비평이 서로 겹들지 않는 시잡지" "구체적이며 정제·정련된 우리

화제의 책

장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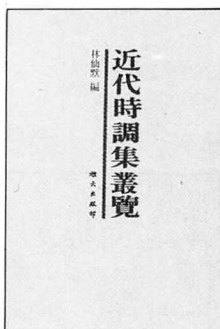
열화당에서 「韓國基層文化의 탐구」 2권으로 「장승」을 펴냈다.

오랜 세월을 걸쳐 한반도의 억센 땅 위에서 우리 민족과 희노애락을 같이해온 장승 지역에 따라 벽구, 하루방, 천하대장군, 수살, 돌미륵, 신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자료집

近代時調集叢覽

林仙默 著



단국대학교 교수인 저자가 자신의 저서 「근대시조집의 양상」 자료편으로 편찬한 저서. 51종의 근대시조집에 수록된 창작시조 1천5백여편을 題材의 가나다 순으로 엮었다.

시문학의 오늘과 내일을 모색하는 시잡지"를 표방하고 있다.

창간호엔 高銀의 장시 「황해-조기굿」을 비롯, 국내시인의 신작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으며, 예프투센코, 빠스체르나크, 보즈네센스키 등의 소련현대시인의 작품을 특집으로 실었다. '시인연구'는 정현중시인이, '나의 삶 나의 시'는 김승희시인이 각각 조망되어 이 시인들의 내면세계를 밝히고 있다.

창간호에 실린 평론 「죽음의 구체성을 향한 시적 갱신」(이광호) 「도시입성과 도시탈출」(남진우) 「소월 시의 님의 실체에 대한 재론」(유재천) 역시 구체적인 작품읽기에 바쳐지고 있으며 고희렬, 김혜순, 하재봉의 좌담 「80년대 시문학의 체험적 고찰」도 흥미로운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청하/A5신/252면/3000원

이 장승은 길가, 동구밖, 서낭당, 사찰문전에 서서 큰 눈을 부라리며 길목을 지켜왔다.

이 책은 사진작가 黃憲萬씨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장승을 109점의 컬러사진에 시원스럽게 담아 보여줌으로써 자칫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의 한구석을 드러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순박한 토속미, 마음을 비운 제작태도, 멋부리지 않으려는 단순성, 과감한 생략, 추상적 신비의 표현 등 우직하면서도 익살스러운 데가 있는 우리 민족의 심상이 역력히 드러나 있다.

아울러 「장승기행」(이종철) 「공동체의 상상력」(박태순) 「生命의 힘, 被格의 미」(유홍준, 이태호) 등의 글을 통해 장승이 우리 사회와 문화에서 차지하는 특성을 고찰하고 있으며, 「장승관계 문헌목록」 「장승 분포도」 「지역별 장승목록」을 실고 있다.

열화당/B5/182면/20000원

시조사에 있어서의 시대구분과는 별도로 편지상 「백팔번뇌」로부터 1950년까지 발간된 시조집을 대상으로 했으며, 초판에 수록된 작품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은상의 유명한 「가고파」에서부터 曹柱鉉의 「X월X日晴」에 이르기까지 6·25전까지의 근대시조가 총망라됨으로써 이 방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시조집 사이의 제목이 동일하거나 같은 작품이 2종 이상의 시조집에 거듭 수록된 경우는 대체로 시조집의 발간 연도순에 따라 배열하였다. 또한 한 시조집에 동일 제목의 작품이 2편 이상일 경우에는 수록면수의 차례에 따르고, 제목 밑에 ①②③을 적어 구별했다.

단국대출판부/A5신/733면/20000원